

요한복음 13 장에서 가롯 유다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18 장에서 군대/대제사장/바리새인들의 하속들과 함께 다시 나타난다. 그렇지만, 요한복음은 13 장에서 18 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예수의 담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. 유다는 여전히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, 전혀 예수를 떠남길/넘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(요 14:22—Q.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유다를 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, 정말 다른 유다였을까? 혹은 다른 유다여야 하는가? 왜? 이미 유다는 정죄된 상태. 그렇다면?). 14 장 마지막에서 예수는 “여기를 떠나자” 하지만, 바로 다음 절(15:1)에 또 다시 길고 긴 설교를 이어간다. 과연 요한복음은 14-17 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? 오늘은 그 일부, 14 장을 13 장과 함께 살펴본다.

A. 예수—다시 읽기

1. 예외와 모범(example)

- 제자들의 발을 씻김=>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.
- 본/모범(13:15)=> 마 10:45 (“인자는” 이라기 보다는 “인자도”. 세상과의 차별. 그렇지만, 예외가 아닌 모범. Q. 예외와 차별은 어떻게 다른가?)

2. 새 계명: 서로 사랑하라

- 근거: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(13:16)
- 제자의 도(13:35)=>섬김.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, 섬김을 통해 예수의 제자임을 확인.

B. 신인합일(神人合一)

1. 예수와 하느님

- 어떻게 하느님을 볼 수 있나? (빌립의 물음)
 - 요 14:9=> 본다/안다(cf. 14:17)
 - 어디(아버지); 가는 길(예수). 예수의 대답=>길, 진리, 생명
 - No one comes to the Father, if not through me(εἰ μὴ δι’ ἐμοῦ)=>두 개의 질문: 아버지(어디--목적지) 그리고 예수(길--행선지). 예수는 그가 믿는/생각하는 아버지(하느님)에 대해 이야기. 고로 이를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문구로 이해하면 곤란. 먼저 배타적 이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가 말하던 그 하느님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
- 그 하는 일(works)이란(요 14:12-13)?

2. 예수와 우리

- 진리의 영(14:17)=> 예수의 영.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(예수를 모르기 때문). Q. 그럼 대중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중 성령으로 이해된 영은?
- 예수의 말을 생각나게 함(14:26)
 - 무엇(근원): 예수의 말/일
 - 왜(기능): 예수의 말/일을 되새김 (remembering=>practice)
- 아버지=예수=우리 (14:20).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. Q. 이를 다른 종교/가르침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?

 생각해 보기

1. 요한복음 14:1-3 은 장례식에서 많이 읽히는 구절. 여기서 말하는 처소/거처(2-3; 23)는?
2.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(요 14:12). 어떤 의미에서?